

작년 12월 가계 대출금리 3.61%

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. 지난해 12월 가계 대출금리가 3.61%로 올라 3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예금금리 오름세가 주춤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졌다.

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'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'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(신규 취급액 기준)는 연 3.61%로 전

은행 가계대출금리 2014년10월 이후 '최고' 주담대 금리 3.42%, 신용대출 금리 4.49%로 1년째 오름세 나타내...시장금리 상승 영향

월(3.59%)보다 0.02%p 상승했다. 지난해 8월부터 1년째 오름세 나타내 2014년 10월(3.64%)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
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. 지난해 12월 주요 시장금리를 보면 단기물인 CD 금리가 1.68%로 전월보다 0.21%p나 뛰어올랐다. 이렇다보니 주로 단기 물에 연동되는 기업 대출금리가 전월보다 0.15%p 오른 3.64%를 나타냈다. 지난 2015년 4월(3.67%) 이후 2년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. 전체 대출금리는 3.62%로 0.07%p 올랐다.

가계대출의 경우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오른 영향도 받았다. 신규 코픽스금리는 지난해 12월 1.77%로 전월보다 0.15%p 올랐다.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.42%로 0.03%p 상승했고, 집단대출(3.43%), 보증대출(3.49%), 일반 신용대출(4.49%) 금리가 줄줄이 올랐다.

예금은행의 수신금리도 1.81%로 전월보다 0.02%p 올라갔다.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1.78%로 0.04%p 상승했다

다만 장기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금융상품 금리는 1.93%로 0.08%p 떨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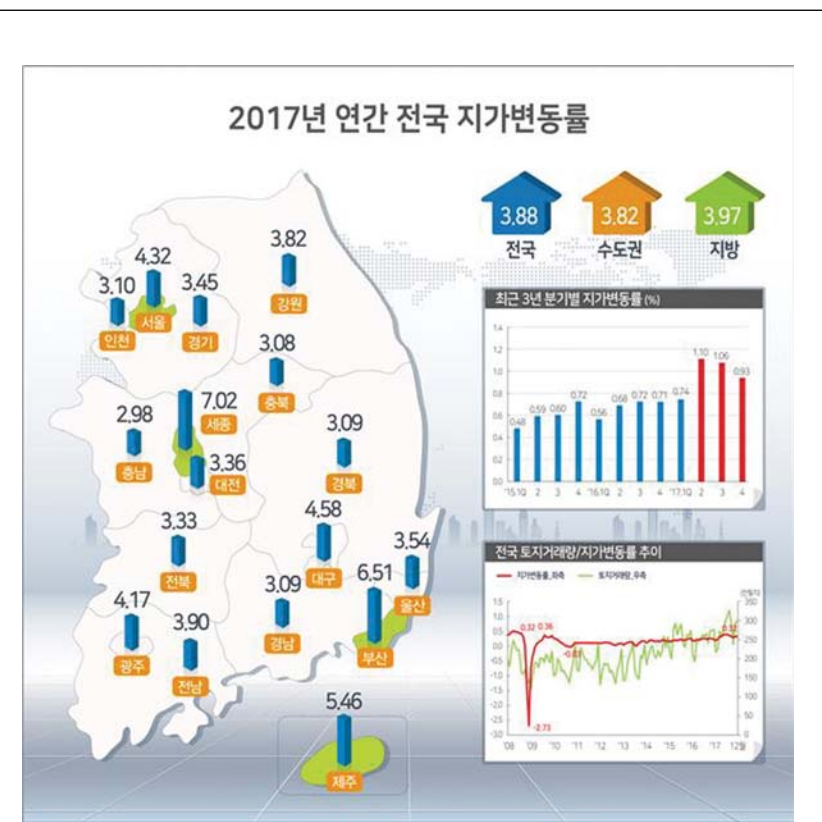
지난해 12월 은행채(AAA)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.95%와 2.33%로 전월보다 0.06%p, 0.07%p씩 내려갔다.

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의 오름세가 주춤해진 탓에 예대금리차는 1.81%로 전월보다 0.05%p 벌어졌다.

덕분에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마진(잔액기준 총수신·총대출 금리차)도 상승 전환하며 0.03%p 올라 2.30%를 나타냈다.



KT, 수요일엔 올레 tv 론칭 KT는 올레 첫 '문화가 있는 날 (문화체육관광부 주관)'인 31일 수요일을 맞아 올레 tv의 브랜드 데이 '#수요일엔 올레 tv'를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.



지난해 전국 땅값 3.88% 상승

세종>부산>제주>서울

지난해 전국 땅값이 3.8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'2017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'에 따르면,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3.88% 상승해 전년 대비(2.70%) 1.18%p 증가했다.

17개 시·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, 부산, 제주, 대구, 서울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.

수도권 땅값 상승률은 3.82%로, 서울(4.32%)이 2013년 9월부터 5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. 경기(3.45%), 인천(3.10) 지역은 전국 평균(3.88%) 보다 낮았다.

지방 상승률은 3.97%로, 세종(7.02%)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(6.51), 제주(5.46), 대구(4.58), 광주(4.17), 전남(3.90)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(3.88%) 보다 높았다.

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(9.06%)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(7.76), 경기 평택시(7.55), 세종시(7.01), 부산 기장군(7.00)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.

국토부 관계자는 "부산 해운대구는 ICT사업 및 센텀2지구,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등 개발호재로 땅값이 상승했으며, 부산 수영구는 남천 및 광안구역 등 주택 재개발사업 진척과 해안가 상업용지 수요가 증가했다"며 "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과 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른 인근 부지수요가 늘었다"고 설명했다.

울산 동구(-1.86), 경남 거제시

(0.33), 전북 군산시(1.17), 경기 연천군(1.50), 경기 동두천시(1.66)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.

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(4.33), 계획관리지역(3.80), 상업지역(3.80), 녹지지역(3.29)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.

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(4.22), 상업용(3.88), 전(3.63), 답(3.49), 터미널·골프장·스키장 등 기타(2.60), 공장용지(2.60), 임야(2.59)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.

지난해 토지(건축물 부속토지 포함) 거래량은 총 331만1500필지(2206.1km, 서울 면적의 약 3.6배)로, 전년 대비 10.7% 증가했다.

분양권을 제외한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, 지난해 1월부터 주택 공급계약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, 분양권 거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.

분양권을 제외한 매매거래량은 2016년 201만223에서 2017년 193만3652건으로 3.8%(-7만6571필지) 감소했다.

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116만1000필지(2037.9km)로 전년 대비 4.4% 증가했다.

시도별 토지 거래량은 세종(44.9%), 인천(24.1), 광주(20.9), 경기(19.1)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, 제주(-6.8)는 감소했다.

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(32.2%), 인천(17.4), 전북(12.7) 순으로 증가했으나 제주(-17.8), 경남(-4.4) 등은 감소했다.

뉴스스

"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월소득 12.7% 사용한다"

"월상환액 부담" 절반 넘어

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액 비율은 평균 12.7%로 조사됐다.

주택금융공사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'주택금융 및 보증자리론 실태조사 결과'를 공개했다.

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266가구 중 52.0%가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상환금액 부담도가 58.9%로 가장 높았다.

이용 상품별로는 ▲은행 주택담보대출 55.6% ▲공사 보증자리론

34.0%로 나타나 정액금융상품인 보증자리론 이용자의 상황 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

거주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59.0%로 가장 높았으며 ▲경기 52.7% ▲기타지방 51.8% ▲서울 38.0% 등의 순이었다.

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액 비율은 평균 12.7%로 ▲서울 15.9%, ▲기타지방 12.5% ▲광역시 12.4% ▲경기 11.4% 순으로 조사됐다.

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20% 이상은 실직 등 유사시 원리금상환방안이 없다고 응답했다. 이어 ▲담보주택 18.1% ▲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 차입 17.3% ▲가입보험 및 개인연금·적금 해지 12.3% ▲여유자금 등이 있어 별 문제 없다

10.8% 등의 순이었다.

주택담보대출 이용의향이 있는 841가구 중 30.8%는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기관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.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▲대출 금리 및 수수료 할인(44.6%) ▲대출 절차의 간소화(19.2%) ▲금융기관 방문하지 않는 편의성(15.1%) 등을 꼽았다.

기존 금융기관 상품과 인터넷 전문은행 상품의 적정금리 차이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의향가구, 전세담보대출 이용의향가구 모두 0.6%포인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0%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집을 살 생각이 있는 전세거주 56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70% 수준일 때

주택구입 의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80% 수준일 때는 ▲서울(93.3%) ▲경기(87.3%) ▲광역시(88.5%) ▲기타지방(70.9%)에서 높은 주택구입의향을 나타냈다.

일반가구 5043가구 중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607가구로 전체의 31.9%를 차지했다. 가구주 연령대로 30대 이하 가구가 가장 높은 구입의향(55.5%)을 보였으며, 현재 무주택 가구의 51.4%가 향후 주택을 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구입 의향 가격은 평균 2억8357만원이며 ▲3억원 이상~6억원 미만 39.8% ▲2억원 이상~3억원 미만 32.0%로 나타났다.

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반가구(전국)만 20세 이상 가구주) 5043가구와 보증자리론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.

뉴스스



임산부 배려석,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?

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.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.